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실현될까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변경안



상무역·남평읍·혁신도시 연결 26.46km 복선 전철...노선 변경 추진
사업비 2600억 증액...재정 부담·편의 감소에 예타 재통과 여부 관심

광주시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을 뒤늦게 추진하면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와 함께 예타 재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광주 상무역과 나주 남평읍, 나주 혁신도시, KTX 나주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26.46km의 복선 전철로 구상 중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고, 지난 6월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용률과 교통 이용 편의 증대를 이유로 광주 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전남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구 3만여명에 달하는 효천지구를 노선에 포함해 이용률을 높이고, 상무역 도시철도 등 광주 도시철도 1·2호선과 연결로 나주 혁신도시, 광주 효천지구, 상무지구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또한, 향후 도시철도 2호선 3단계(백운광장~효천지구) 사업 추진도 쉬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비용 대

비 편익(B/C) 감소, 전남도와 협의의 상황 등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 변경 시 기존 26.46km에서 28.77km로 늘어나면서 예상 사업비는 현재(1조5192억원)보다 광주 부담금 600억원, 전남 부담금 200억원 등 모두 2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도 0.78에서 0.63으로 낮춰질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니 관련 절차 진행 후 변경을 검토하지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총사업비가 15% 이상 오르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노선 변경으로 17%가량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조사를 받느니 사전에 계획을 변경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이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낮은 이용률과 짧은 운행거리, 효과성 모호, 적자운행 등의 부정적인 시면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은지(민주·비례)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에서 "당초 노선에 인구 3만여명이 거주하는 효천지구를 포함 시켰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광주시가 뒤늦게 노선 변경을 요청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재통과 여부와 사업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부담을 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용 광주시 교통국장은 "특정 지역을 위한 선택, 경쟁, 충돌이 아니라 협력의 문제라며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 성황 2023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가 18일 오후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여성 구직자들이 채용·기업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남서 9년만에 한일해협연합 교류회의

여수서 3일간...종묘 방류·다움달 어업인 친목 사업 등 협의

전남도가 18일까지 3일간 여수에서 8개 한일 해협 연합지역 수산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제30회 한일해협연합 시·현 수산교류회의를 열어 수산종묘 방류, 수산 정책 등을 논의했다.
한일 해협 수산교류회의는 1992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 해협 연합 시·현 지사회의'에서 합의된 양국 간 공동사업 중 수산 분야 교류회의이다.
1993년부터 전남, 부산, 경남, 제주와 일본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사가현, 후쿠오카현이 참가해 수산자원 및 수산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매년 한·일 양국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 회의는 9년만에 전남도에서 열렸다.
17일 오전 여수엑스포 선착장에서 한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어업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도의 도어(道魚)인 참돔 2000마리를 방류

하는 행사를 가졌다.
오후에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선정한 3가지 주제인 유해생물 구제 대책, 수산식품산업 육성 방안, 수산물 판매 촉진 대책과 한일 공동연구과제인 증양식에 관한 종자 생산 기술과 수산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어 올해 양국에서 추진한 어류 종묘 공동 방류 사업을 소개하고, 오는 11월 일본 어업인이 전남을 방문하는 어업인 친목교류 사업을 협의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매년 개최하는 수산교류회의에서 한일 해협 연합 지역 간 해양수산정보를 교환해 양국 수산 발전과 어업 증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국 수산업이 상생 발전하도록 수산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탄력

무안군민 찬성 여론 높아...道 "광주시, 이전 시기 입장 밝혀야"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무안 군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동시 이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으나 지역 여론을 외면하면서 무안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군공항 합병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계획과 어긋나고,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남도는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

군공항·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시기에 대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연구원도 무안·함평주민 각각 500명씩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안군민의 50.6%가 광주 군공항·민간공항을 통합 이전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힌 만큼 광주시와 무안군이 이 같은 지역 여론을 반영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만이 아니라 광주·무안의 협의로 서둘러 줄 것도 강조했다.
정현범 전남대 기획조정실장은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군 공항 예정지역(해제면 59.7%, 현경면 51.2%)의 찬성 비율이 높고 소음

피해와 무관한 지역(일로읍 56.9%, 청계면 54.8%, 삼향읍 48.1%)은 반대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유치의향서 제출에 대해서도 무안군민의 44.4%가 찬성해 찬·반(47.8%)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며 "군공항·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찬성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병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도록 국가계획에 반영돼 있는 만큼 문항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남연구원은 11월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남로에서 거리예술 보며 꿈같은 일탈

20~22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9개국 35개팀 참가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2023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진행한다. 18일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은 프린지페스티벌은 '거리예술, 꿈같은 일탈'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분산 개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5·18민주광장,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다양한 거리예술 공연이 준비됐다. 이동형 거리극, 서커스, 파이어댄스, 거리춤, 대지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9개국 35개팀이 총 76회 공연을 선보인다.
해외 초청작 8편, 국내 우수 초청작 11편, 공모작 14편, 지역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기획 제작 작품 2편과 아시아 거리예술 전문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프린지페스티벌은 3년 만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해외 거리예술 단체들을 초청해 시민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프랑스, 스페인,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9개국 예술가 8개의 작품이 찾아온다.
참여작품들은 고독, 갈등, 청년, 역사, 기후위기 등 현 시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화려하고 경이로운 거리예술을 통해 시대-세대-환경과의 '회복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20일 오후 3시부터, 21일과 22일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거리축제로 인해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자정까지 전일빌딩부터 금남공원까지 도로가 통제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장성군 공고 제2023-157호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 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장 성 군 **참 성** 군수인

- 근거법령**
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및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사업개요**
가. 사업명: 한빛원자력 1,2호기 계속운전 사업
나. 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일대
다. 사업규모: 가압경수로원자로 950MW급 2기 및 부대시설
라. 사업기간: (한빛1호기) 2027. 6. ~ 2035. 12.(예정)
(한빛2호기) 2027. 6. ~ 2036. 9.(예정)
마. 시행자: 한국수력원자력(주)
- 공람기간 및 장소 / 의견수렴대상 지자체**
가. 공람(열람)기간: 2023. 10. 19. ~ 12. 18. 09 ~ 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60일, 초일(공고일)불산일)
나. 공람(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장성군		행정복지센터(3개소)	
재단안전과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다. 공람자료: 공람장소에 비치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출력가능)

-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대상: 의견수렴대상 지자체(삼서면 등 3개면)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 양식 확인 가능)
다. 제출의견: 계속운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포함) ※ 계속운전 관련 찬반여부 의견이 아닌
라. 제출기간: 공람(열람)기간 및 공람(열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2023.12.26.까지)
※ 기간 말일 공휴일시 익일로 연장(민법 제161조)
- 문의처**
가.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문의: 장성군 재단안전과 ☎ 061-390-7451, 7453
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 및 기타문의 사항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 콜센터 ☎ 061-357-7371~3

무안군 공고 제2023-1060호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 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무 안 군 **수 안** 군수인

- 근거법령**
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및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사업개요**
가. 사업명: 한빛원자력 1,2호기 계속운전 사업
나. 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일대
다. 사업규모: 가압경수로원자로 950MW급 2기 및 부대시설
라. 사업기간: (한빛1호기) 2027. 6. ~ 2035. 12.(예정)
(한빛2호기) 2027. 6. ~ 2036. 9.(예정)
마. 시행자: 한국수력원자력(주)
- 공람기간 및 장소 / 의견수렴대상 지자체**
가. 공람(열람)기간: 2023. 10. 19. ~ 12. 18. 09 ~ 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60일, 초일(공고일)불산일)
나. 공람(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무안군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		해제면	

다. 공람자료: 공람장소에 비치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출력가능)

-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대상: 의견수렴대상 지자체(해제면)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 양식 확인 가능)
다. 제출의견: 계속운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포함) ※ 계속운전 관련 찬반여부 의견이 아닌
라. 제출기간: 공람(열람)기간 및 공람(열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2023.12.26.까지)
※ 기간 말일 공휴일시 익일로 연장(민법 제161조)
- 문의처**
가.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문의: 무안군 안전총괄과 ☎ 061-450-5818
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 및 기타문의 사항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 콜센터 ☎ 061-357-7371~3

함평군 공고 제2023-1195호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 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함 평 군 **수 평** 군수인

- 근거법령**
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및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사업개요**
가. 사업명: 한빛원자력 1,2호기 계속운전 사업
나. 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일대
다. 사업규모: 가압경수로원자로 950MW급 2기 및 부대시설
라. 사업기간: (한빛1호기) 2027. 6. ~ 2035. 12.(예정)
(한빛2호기) 2027. 6. ~ 2036. 9.(예정)
마. 시행자: 한국수력원자력(주)
- 공람기간 및 장소 / 의견수렴대상 지자체**
가. 공람(열람)기간: 2023. 10. 19. ~ 12. 18. 09 ~ 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60일, 초일(공고일)불산일)
나. 공람(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함평군		행정복지센터(4개소)		
안전관리과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다. 공람자료: 공람장소에 비치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출력가능)

-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대상: 의견수렴대상 지자체(손불면 등 4개면)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 양식 확인 가능)
다. 제출의견: 계속운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포함) ※ 계속운전 관련 찬반여부 의견이 아닌
라. 제출기간: 공람(열람)기간 및 공람(열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2023.12.26.까지)
※ 기간 말일 공휴일시 익일로 연장(민법 제161조)
- 문의처**
가.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문의: 함평군 안전관리과 ☎ 061-320-1985
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 및 기타문의 사항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 콜센터 ☎ 061-357-7371~3